

나주, 광주 동구·서구 땅값 왜 오를까

한전공대·시즌2 기대 산포·봉황 들쭉
광주 도심재개발 동명동·광천동 상승

전국적으로 땅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주시와 광주 동구, 서구 지역은 전국평균을 웃도는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나주는 한전공대 설립 기대심리로 땅값이 올랐으며, 광주 동구와 서구는 도심 재개발이 땅값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분석됐다.

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1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나주지역 지가는 평균 1.6% 상승했다. 산포면 2.5%, 동강면 2.36%, 봉황면이 2.33% 각각 올랐다. 산포면은 빛가람혁신도시와 인접

한 지역으로 오는 2022년 3월 개교 예정인 한전공대가 들어서는 지역이다. 지역 부동산중개소 관계자는 "한전공대가 들어오기로 하면서 산포면 지역 부동산 가격이 크게 들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봉황면 역시 혁신도시와 연결되어 한전공대 개교와 '혁신도시 시즌 2'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

도심재개발사업이 활발한 광주 동구의 지가는 평균 1.53% 올랐다. 동명동 2.21%, 계림동 2.14%, 산수동 2.10%로 이들 지역 모두 도심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중인 곳이다.

광주 서구의 경우도 평균 1.46% 올랐으며, 벽진동·마복동·매월동 2.35%, 광천동 1.75%, 유촌동·덕흥동·동천동이 1.66%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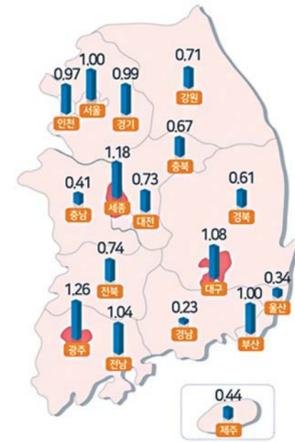
지방의 평균 지가 상승률이 0.69%인 반면 광주(1.28%)가 최고 상승률을 보였고, 세종, 대구, 전남, 부산 등 5개 시·도는 전국평균(0.88)을 상회했다.

1분기 전국 지가변동률은 평균 0.88% 상승해 지난해 1분기(0.99%)보다 0.11%포인트 감소했다.

지가변동률은 9·13 부동산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난해 3분기(1.26%), 4분기(1.22%)에 이어 꾸준히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1년 전보다 수도권(1.02%→0.99%)과 지방(0.93%→

◇1분기 전국 토지거래량



0.69%)의 땅값 모두 상승폭이 둔화했다. /서미애 기자

5월 광주 부동산 분양 후끈

12개 단지 6천세대 공급 계획
주상복합 4곳·오피스텔 2곳

5월 광주 분양시장이 후끈 달아오를 전망이다. 재개발·지역주택조합·오피스텔 등의 공급이 다수 예정돼 있어 분양대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시장 흐름을 살펴보면 분양시장을 저울질하던 건설사들이 대규모 분양시장에 나서면서 어떤 단지가 실수요자들이 선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광주·전남 부동산 포털 사랑방 부동산에 따르면 다음달 광주에서는 12개 단지 6,000여 세대가 공급을 앞두고 있다.

광주시 북구 중흥동에는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 1,556세대가 선을 보인다. 중흥3구역에 재개발한 아파트로, 일대에 신형 주거단지가 조성된

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인 서구 금호지구 대광로제비방 362세대, 북구 운암동 모아미래도 508세대가 다음달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주인 찾기에 나선다.

북구 용봉동 한국아델리움2차 56세대와 광산구 우산동 진아리채 558세대, 어등산 한양수자인 테라스 592세대 등도 5월 중 분양에 나선 채비를 마쳤다.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 분양도 다수 예정돼 있다.

5월 공급되는 주상복합아파트로는 서구 화정 아이파크 847세대, 남구 봉선주빌 대라 어썸브릿지 183세대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서구 농성동 광천 중해마루힐 센텀 219세대도 다음달 임대공급 될 계획이다.

첨단지구에서는 오피스텔 2곳이 출격을 앞두고 있다. /서미애 기자

전남도회, 정기총회

대한건설협회전남도회(회장 김영구)는 제61회 정기총회를 오는 30일 10시 30분에 광주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8 회계연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하고 '2019 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수입지출 예산(안) 결정의 건' 등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 4년간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를 이끌어갈 제22대 회회장을 비롯해 임원(부회장, 감사, 운영위원)과 대의원, 윤리위원을 선출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는 광주·전남 4년제 대학교 건설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우수대학생 13명에게 150만원씩 총 1,95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서미애 기자

'위니아 제습기' 출시

대우위니아는 2019년형 '위니아 제습기'를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품은 '듀얼 컴프레서(압축기)'를 장착해 두 개의 실린더가 움직여 진동과 소음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번 신제품 라인업 5종 모두 대한아토피협회 '아토피 안심마크'(KAA)를 획득했다.

2019년형 신제품은 허리를 숙일 필요가 없도록 컨트롤러가 상단에 배치하는 등 디자인을 새롭게 바꿨고, 효율과 기능을 개선했다.

1인 가구를 위한 8L 소용량 제품은 내달 초 처음으로 출시된다.

이밖에 11L, 14L, 16L, 18L 용량 제품은 출고가 기준 최고 60만 원대로 이날부터 구매할 수 있다.

광주조달청-LH 광주전남본부 업무협약

조달사업·공공주택사업 교류·협력 기대

광주지방조달청(청장 김지숙)은 25일 LH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백인철)와 업무교류와 상생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LH 광주전남지역본부는 광주전남의 공공주택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주지방조달청은 LH 광주전남지역본부에 필요한 관급자재를 매년 300억 원 이상의 상당 규모로 조달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이러한 노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공공주택 공급사업과 조달사업간 정보교류 ▲원활한 조달계약 체결을 위한 교육·자문 ▲사회공헌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등을 공동 추진하며, 기존 단순 업무협이나 정보공유를 넘어서 진정성 있는 상호 협력과 소통의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광주지방조달청은 LH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업무교류와 상생발전을 위해 25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조달청 제공

백인철 LH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양 기관의 업무 전문성을 살려서 '공공주택 공급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조달정책 기능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지숙 광주지방조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공공주택 공급사업에 필요한 관급자재 등의 계약에 대해 상호 긴밀히 협력해 보다 신속한 사업추진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광주축산농협, NH생명보험 3년 연속수상

전국 농협 유일... 대상2관왕

광주축산농협은 25일 '제31회 NH생명보험' 시상식에서 연도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NH생명보험 연도대상은 보장성 및 저축성 보험료와 수입수수료 등을 평가해 그룹별 최고 득점을 획득한 조합에 주어진다. 이번 생명보험 연도대상 수상은 3년 연속이며 전국 농협에서 유일하게 NH생명보험, NH생명보험 연도대상 2관왕이라는 점에서 광주축산농협의 괄목할만한 사업성장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김호상 조합장은 "광주축산농협의

꾸준한 성장과 함께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게 돼 조합원과 내방고객께 감사를 드린다"면서 "조합원들의 농가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급변하는 금융환경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선도적인 협동조합이 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축산농협은 올해 농협중앙회 종합업적평가 전국 최우수조합, NH손해보험 연도대상을 수상한데 이어 NH생명보험 연도대상을 수상함으로써 임직원들의 저력을 보여주었고 고객들에게 종합 금융기관으로서 신뢰를 얻고 있다. /서미애 기자



광주축산농협은 25일 대전 호텔 ICC에서 열린 '제31회 NH생명보험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연도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광주축산농협 제공

전남농협 쌀 '풍광수토' 첫 영남권 진출

내달부터 릴레이 판촉행사

전남농협 쌀 공동브랜드인 '풍광수토'가 처음으로 영남권에 진출했다.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석기)와 전남도(도지사 김영록)는 전남농협 쌀 공동브랜드인 '풍광수토'를 부산 현지 물류업체인 서인인터네셔널(대표 유현호)을 통해 25일부터 트리아웃마트 등 부산·경남권 중대형 마트에 1만포대(10kg짜리)를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남도의 지원으로 풍광수토가 본격적으로 영남권 소비자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10kg 1포를 구매한 고객에게 양파 1망(1.5kg)을 증정한다.

이날 행사는 부산과 부산인근의 남부경남권에 소재하고 있는 트리아웃마트를 비롯해 661㎡(200평) 이상의 마트 등에서 진행했다.

전남농협은 지난해 6월 해운대와 광안리 등지에서 진행한 첫 홍보 행사 후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부산을 비롯한 경남권 소비지에 풍광수토를 입점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현지 농산물물류업체인 서인인터네셔널과 함께 고품질 풍광수토 쌀

을 유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으로 소비자에게 만나기 위해 이번 입점행사를 하게 됐다.

김석기 본부장은 "풍광수토가 지난 1월 전문가가 선정한 2018년 결산베스트 신상품 미국부분 대상에 선정된 후 3월 제주도 첫 입점, 4월 세 차례 공영홈쇼핑을 통한 성공적 판매, 이번 첫 영남권 입점을 통해 전국 브랜드로 발돋움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도와 함께 5월부터는 전국의 농협 대형판매장인 양산, 고양, 성남, 수원 등 릴레이 판촉행사를 실시해 풍광수토가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농신보 '찾아가는 현장보증센터' 운영

어업인후계자 89명 대상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농신보) 전남보증센터(센터장 김훈기)는 최근 전남 수산업경영인종합지원센터(목포시 죽곡동 소재)에서 2019년 선정 어업인후계자 89명을 대상으로

농신보 제도를 설명하고 '찾아가는 현장보증센터'를 운영했다. 농신보는 농어업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창업관련보증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어업인후계자들은 보증이용 절차에 관심을 보였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광은리더스클럽 창립 12주년과 광주은행 창립 51주년을 기념해 최근 홀리데이인 광주 호텔에서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CEO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정기총회 및 초청강연회를 가졌다. /광주은행 제공

광은리더스클럽 정총·초청 강연회 성료

올해 사업안 확정...지역현안 동참 다짐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광은리더스클럽 창립 12주년과 광주은행 창립 51주년을 기념해 최근 홀리데이인 광주 호텔에서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CEO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정기총회 및 초청강연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광은리더스클럽은 지난 2007년 9월 창립해 현재 230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지역 우수 중소기업 CEO들의 모임으

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면서 지역의 명문 클럽으로 성장했다.

이날 행사에서 광은리더스클럽은 '사랑나눔 봉사활동'과 '지역현안에 대한 적극적 동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9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어 '나를 지독히 사랑하는 법, 인생미(美)답'이라는 주제로 김미경 강사의 강연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서미애 기자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도 뛰어난 경영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광은리더스클럽 회원들의 각별한 애정과 성원이 있어 가능했다"며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각 분야의 최고 CEO들로 구성된 광은리더스클럽이 앞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함께 펼쳐 지역민과 동행하는 광주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